

가장 유흥준다운 글의 향연... 다양한 경험과 사유·답사의 산물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유흥준 잡문집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

유흥준 지음

“풍부하되 한마디 군더더기가 없고, 축약했으면 한마디 놓친 게 없다.”

간략하지만 빠진 것이 없으며 풍성하면서도 사족이 없다는 의미다. 글을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흥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펴낸 에세이 안쪽 내지에 쓰인 문구다. 직접 유 교수가 짓고 썼으며 문인화 한 점까지 첨부돼 있다.

책 제목 ‘유흥준 잡문집 나의 인생만사 답사기’라는 제목부터 눈에 들어온다. ‘잡문집’, ‘인생만사’, ‘답사기’라는 키워드에서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략 가늠이 된다.

사실 유흥준 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글쟁이’ 가운데 한 명이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국내편(1-12) 외에도 일본편(1-5), 중국편(1-3) 등 다수의 답사 관련 저서를 펴냈다. 지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한국미술사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한국문화유산답사회를 이끌었다.



일반 대중과 독자에게 유흥준은 문화유산답사를 매개로 개성적이면서도 맛깔스러운 글을 쓰는 글쟁이로 알려져 있다. 500만 부 판매라는 신화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만의 글쓰기 비법에서 비롯됐다.

이번 책을 가리켜 저자는 ‘잡문집’이라고 일컫는다. ‘일정한 체계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쓴 글’을 잡문(雜文)이라고 한다. 고상하게 말하면 에세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저자는 “젊은 시절에 루쉰(魯迅)의 잡문에서 받은 영향 때문이다. 내 또래와 내 선배들 세대에겐 루쉰은 지식인의 표상이었다. 루쉰은 자신의 글을 잡문이라 했고 ‘아침 꽃을 저녁에 줘다’ 등 루쉰 잡문집이 여러 형태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루쉰의 잡문은 일상과 사상을 아우르는 담론 성격의 글이다.

저자의 글은 여러 직장, 직책을 가로지르며 데서 보듯 다양한 경험과 사유와 답사의 산물이다. 미술사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물관장, 문화재청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 직함이 이를 방증한다. 직함에 따라 썼던 글과 생각의 단편들이 씨줄 날줄 엮이듯 글이라는 유기체를 형성한다.

책은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인생만사’, ‘문화의 장’, ‘답사 여적’, ‘예술가와 함께’, ‘스승과 벗’ 등이 그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가장 앞자리를 장식한 첫 번째 잡문은 ‘고별연: 마지막 담배를 피우며’이다. 서두에 고별연을 실은 것부터 이색적인데 모티브가 담배다. 45년간 함께 해온 기호품과 결별하기까지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담배의 순기능을 비롯해 애용하던 담배 이름, 담배를 끊게 된 직접적인 이유 등을 기술하고 있다. “서럽고 처량하고 치사해서 끊은 것”이라고 한다. 담배 피우는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과 냉대가 직접적인 이유다. 유 교수는 “인생의 벗이 되어 주었던 것에 감사하며 강제로 이혼당한 기분”으로



밀양강이 뱀들이 가는 언덕 위에 능률한 자태로 자리 잡고 있는 영남루는 2023년 12월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금연을 시작했다. 그런데 올해 봄 벗들이 떠나면서 장례를 치르다 다시 담배를 입에 넣고, 책 발간과 맞물려 다시 금연을 해야 하는 처지라고 고백한다.

식견이나 유려한 문체가 빛나는 글 가운데 눈에 띄는 작품은 “한국의 이미지”로서 누정의 미학이다. 유 교수는 정자 내력을 알려주는 기문(記文)에 대해 “문사로서는 자신의 학식과 인문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글이라고 본다.

성종 때 서거정이 금강변 정지산의 취원루에 붙인 기문을 명문으로 평가한다. “정자에 오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뜬 마음을 바라보면서 농사의 어려움을

생각해보게 하고, 민가를 바라보면서는 민생의 고통을 알게 하고, 나루터와 다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를 잘 건너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한다.”

한편 ‘스승과 벗’에는 리영희 선생, 백기완 선생, 신영복, 이애주, 박영선, 홍세화 그리고 올해 세상을 떠난 김민기에 대한 추도사 등이 실려 있다. 또한 부록으로 ‘나의 글쓰기’에는 “좋은 글쓰기를 위한 15가지 조언”이 수록돼 있어 문장 강화를 위해 참고할 만하다.

〈창비·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관조하는 삶

한병철 지음, 전대호 옮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다. 잠시 낯을 잃고 있다가는 나만 홀로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때도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와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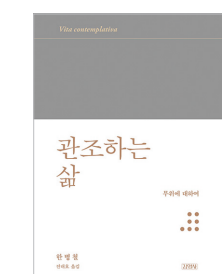
학자에 따라, 전공 분야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방안을 제시한다. 저마다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주변 여건이 맞지 않을 때도 많고 시간적 물리적 제약도 따르기 때문이다.

한병철 전 베를린예술대학교 철학·문화학 교수는 ‘관조’를 이야기한다. 잠시 멈추고 무위의 순간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한 교수가 펴낸 ‘관조하는 삶’은 서두름의 시대에 ‘관조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책에는 모두 6편의 관조와 연관된 에세이가 수록돼 있다. ‘무위의 풍경들’을 비롯해 ‘장자에게 붙이는 사족’, ‘행위에서 존재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책에서 저자는 게으름의 중요성이나 관조적 명상을 일상에서 실천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강박적으로 적용되는 효율과 기능성의 측면에서 한 발 물러나라고 제시한다. 일종의 무위 예찬이다. 목적과 효용, 결과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무위는 일종의 해독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저자는 클라이스트의 단편 ‘인형극에 관하여’를 예로 든다. 춤꾼이 자신의 몸짓을 의식하는 순간 우아함을 상실한다는 것. 즉 “명인의 솜씨란 무이다. 행위는 무위에 이르러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말한다. “인류 미래는 행위하는 사람들의 권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관조하는 능력을 되살리기에 달려 있다.”



〈김영사·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종목 지음

‘개 같은 X’, ‘개만도 못한 X’라는 표현이 있다. 행실이 개만도 못한 사람을 욕하는 말이다.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초 개는 인간보다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인들에게 개는 ‘반려’의 존재다. 개모차, 개 장례식, 개 유치원이 등장할 만큼 반려견을 향한 사랑은 가히 차고 넘친다.

반대로 ‘개만나니’, ‘술먹으면 개가 된다’ 등 누군가를 비하할 때 개가 쓰이는 사례도 많다. 그만큼 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을 틀림없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이종목 교수가 엮은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개를 사랑했던 조선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인문학 책이다.

책에는 31편의 개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이규보의 ‘나의 개에게’, 이익의 ‘개의 직책과 천성’, 이시원의 ‘공정한 개의 마음’, 허균의 ‘불법을 깨닫은 개’ 등 조선시대 사람들이 개에 대해 다룬 글을 소개하고 각 편마다 저자의 해설을 덧붙였다.

조선 시대 기록에는 목을 매어 주인을 따른 충구(忠狗), 주인을 화재에서 구하고 죽은 의구(義狗), 어미 개가 죽자 새끼 개가 따라 죽는 효구(孝狗) 등의 존재가 등장한다. 다른 개의 새끼에게 젖을 나눠 먹이는 개, 우애와 효성이 깊은 개, 불심(佛心)이 있어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개들의 일화도 소개돼 있다.

옛 사람들의 글에서 개를 다룬 시각은 명확하다. 개의 행동을 통해 잘못된 인간의 행위를 꾸짖는 교훈의 성격을 갖는다. 흘러간 옛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넘기기에 시시하는 바가 큰 글들이 많다.



〈돌베개·1만85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기업의 판도를 흔드는 AI 초혁신

장우경 지음

챗 GPT3보다 인간다운 대화가 가능한 GPT-3.5는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이용자를 돌파해 ‘최고의 챗봇’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4개월 만에 선보인 GPT 4.0은 이미지와 텍스트까지 대응 가능한 멀티 모델로 미국 사업시점(LAST)에서 상위 10% 성적을 기록했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AI 인공지능이 비즈니스 모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AI를 기반으로 확장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고찰을 담은 책이 나왔다.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받은 장우경이 최근 ‘기업의 판도를 흔드는 AI 초혁신’을 펴냈다. 저자는 SK텔레콤에서 글로벌사업 실무 담당했으며 기업을 M&A하며 통신, 금융의 경계를 허물어 왔다. 이후 글로벌 핀테크 업체 페이팔과 해외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는 데 일조했다.

저자는 AI를 넘어 이미 도래한 AX(AI Transformation)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명 ‘디지털 혁신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팀이 되기 위해 초혁신이 필요하며, ‘AI 리그’의 본질이 디지털 프로덕트의 창출과 소프트웨어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라 주장한다.

“아무리 뛰어난 신기술이더라도, 그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반 사항들, 즉 여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범용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책은 기초주의로 대표되는 과거 컴퓨팅 파워의 변천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발전 및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의 흐름을 살펴본다. 이를 둘러싼 제반 사항은 물론 AI 가상비서와 초개인화된 슈퍼앱, 초전도 데이터 등 ‘지능형 자동화’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매일경제신문사·2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11월호

2024년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익어가는 우리 술의 매력**

- 청년 양조인들의 도전 참신해진 ‘남도 전통주’
- 남도 전통주는 어떤 술이 있나
- 자존심으로 최고를 빛내는 막걸리 장인들
- 호남 최초 전통주 복합문화공간 ‘요담엔’

맛과 함께 **장성 여행**

황룡강변 하늘술길 애기단풍

기획-지금은 아트페어 시대

키아프·프리즈 서울을 가다
동시대 세계·한국 미술을 만나는 장

‘아트:광주:24’가 남긴 것
관람객 2만 5000여 명 발길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②
융접기 든 재미 조각가, 존 배

예향 초대석

과학과 대중 이어주는 과학커뮤니케이터 **이정모**
“자연사에 인류 지속가능의 답이 있어요”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고요함으로 향하길 **전남의 시찰**

문화화재 **광주 출신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미**

호남의 누정@-광주 아문당
조선 선비 은일의 미학 품은 정자

한국의 전통음식-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에필로그

석지 채용신
전통양식을 계승한 마지막 초상화가

회제의 현장
월간 <예향> 창간 40주년
마흔해 퀘적 담은 아카이브전